

착한 공기기업은 없다... 인천공항공사 '兆' 단위 수익 독식

[기고]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 7만명 생사기로
영업익 1조3000억원 나홀로 호황
싱가포르 공항 착한 임대료와 대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공기기업이다. 협회가 안 좋았던 작년에도 수익 수 1700명인 회사가 8600억원의 손익을 냈다. 매출액 2조 8300억원으로 1조2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니 영업마진이 무려 45%다. 진행 중인 4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무리가 없다. 부채비율 32%로 탄탄한 재무구조는 다른 공기기업들의 부러움이다.

평균연봉 8400만원을 받는 직원들은 해마다 공기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보너스도 따로 챙긴다. 임원들의 연봉은 두 배로 된다. 가히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탁월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성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사활을 건 경쟁과 혁신의 결실인가. 항공교통 인프라의 독점적 운영자가 갖는 특권 때문인가. 공항이 성업 중인 이유는 물론 꾸준해 증가하는 이용객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사업 초기부터 탄탄대로였다. 2001년 개항 때부터 이미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모두 흡수한 덕분에 신규고객 확보에 어려움 없이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던 것이다.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는 전체 항공여객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배후에 두고 전 세계 52개 국가, 173개 도시를 연결하는 공항의 이용객은 작년에 처음으로 7천만 명을 넘어섰다. 개항 때보다 5배 가까이 늘면서 높은 성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수익구조를 보자.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받는 시설사용료가 주 수입원이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특별하다. 공항 본업의 항공수입보다는 부업으로 버는 비

(非)항공수입이 더 많다. 해마다 총매출의 65%를 넘는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항의 복합기능이 강조되는 에어 시티가 세계적 조류인 걸 보면 인천공항의 안목은 처음부터 남달랐다. 목 좋은 곳에 입지를 정하고 동선과 공간을 제대로 설계하고 건설했던 게 주효했다.

당시의 설계자들, 그리고 건설사업단의 해안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 덕을 보는 것이다. 공항은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산업에 가깝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항의 업무는 기능이 복잡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단순·반복적 단위업무들의 조합이다. 활주로와 터미널, 부대시설에 대규모 장치를 설치하고 낮은 원가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구조다.

수요가 일정 규모만 넘어서면 수익률은 확대된다. 고정비 투자가 큰 만큼 매출의 변동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업종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고 나면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을 것지만 글로벌 수요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흑자행진이 계속된다는 걸 시사한다. 항공사들이 국내·외에서 여행객을 불러들이고 착륙료까지 부담해주는 공항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 영업을 대신 해준 게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국적 LCC들이 취항하면서 이용객을 더 늘여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공항을 드나드는 여행객들에게 쇼핑의 매력을 더해주고 넉넉히 임대료를 내주는 상업시설 임대사업자들이 있는 것도 인천공항으로선 행운이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롯데와 신라, 신세계 3대 면세점이 내는 연간 약 1조원의 임대료가 인천공항의 제일 큰 수입이다. 인천공항은 명품매장이 모두 입점

해 있는 세계 최대 면세사업장의 건물주인 셈이다.

공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노선이 살아난다고 해도 90%를 넘는 국제노선이 초토화되었으니 올해는 인천공항도 적자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힘들다고 해도 인천공항에는 임금의 삭감이나 휴직이 없고 회사의 명운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항공의 중심에 있는 인천공항은 지금 위기에 빠진 업체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엔 모두 7만 명이 넘는 지상조업사와 상업시설의 종사자들이 협력하고 상상하는 생태계가 있다. 항공사와 임대사업자들 덕분에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이익을 그들과 공유하지는 얘기가. 외국의 공항들처럼 고통을 분담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싱가포르 공항은 이미 면세점과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제2, 제3 터미널엔 전액을 감면했다. 해외의 많은 공항이 발 빠르게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거나 납부 방식을 매출 연동제로 바꾸었다. 항공사들의 텅텅 빈 지점사무실, 정비사무실과 보급창고, 발권카운터, 라운지와 손님 발길이 끊긴 면세점에 꼬박꼬박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쳐 보인다.

공기기업의 주인인 국민도 그렇게 해서 버는 임대료는 원치 않을 것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장사 잘되는 건물주는 '갑'의 위치다. 그러나 세입자가 돈을 벌어야 함께 흥하는 게 시장의 이치다.

酒食兄弟千個有, 急難之朋一個無(주식형제천개유, 급난지붕일개무). 먹고 마실 때는 많았지만 막상 급난에 처해선 어려움 나눌 친구가 없음을 표현한 명심보감의 한 문구이다.

강원도 춘천 출생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박사 항공경영학회 초대회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장/대학원장 (현재)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견고해져야 할 총선공약들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시대가 나뉠 것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바꾼 시대상과 생활습관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뜻하는 AC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1대 총선 이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지만,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직개편이 아닌 전반적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00석 중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공약 실현 가능성은 커졌다.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산하에 6개 지역본부 및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해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랬듯이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권,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간 지적됐던 '실질적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대한감염내과학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학회는 "질본이 방역대응의 실질적 최상

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신종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질본의 방역 정책이 적시 적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조율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질본의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 조직체계의 변화도 동시에 진행된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공중보건 위기 시 집중대응이 가능하도록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보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처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코로나19 공약의 핵심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필수조건이지 온전한 대응책이 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메르스 이후 질본이 차관급으로 격상됐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단순히 한 단계 올라가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신종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지금처럼 질본 본부장이 대국민 소통에 집중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 지휘로 변화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직개편과 함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광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면서 기간이 되는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먼저 성공시켜야 한다.

광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앞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감염병 치료과 정에서 중심축이 되는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이다. 애초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구 을지로에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기관을 이전하면서 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표류 중이다.

4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에 관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 경제, 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 설치를 장기 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론 재정립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국 광역별 전문병원이라는 타이를보다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뤄진 국내 의료진단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박근민 기자 ray@newdailybiz.co.kr

기자수첩 버림받은 '이스타'...아프지 않은 이상직

이상직 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전북 전주시에 출마한 그는 선거기간 내내 '경계동'이자 '믿음직한 일꾼'임을 자처했다.

이 당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회장을 지냈다. 현재까지도 실질 대주주다. 그런 그가 존망의 기로에 선 이스타항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집권여당의 '경제'를 자임하고 나선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아리타리하다.

현재 이스타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전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대상 인원은 300~400명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아예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직원 몰래 체납해왔고, 연말정산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운영비가 없어 급기야 지난 달엔 모든 노선을 중단했다. 이달 초부터는 전 직원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수년간 이어진 자본잠식에 당장 잡히는 현금을 모두 빼졌고, 결국 탈이났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주인이 없는 상태다. 제주항공에 지분 51.17%를 넘기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금은 총 545억원이다.

거래가 끝나면 이 당선인 일가는 수백억을 손에 넣게 된다. 지분은 당선인 아들과 딸이 나눠 갖고 있으며, 딸은 이른바 이달 말 완료된다. 구조조정 보상, 체불 급여 등은 모두 새 주인 몫이다.

하지만 이스타 직원들 사이에는 이 당선자에 대한 원망이 북돋워 이른다. 실질 소유주로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매각대금 일부를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이번 사태가 취약한 재무구조 등 회사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낫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는 2000명 남짓한 조직 경영에 실패한 인물로 지역을 위한 실적없는 일꾼을 자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문이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혹독한 책임을 져야했던 오너사 사재출연 사례들과는 한참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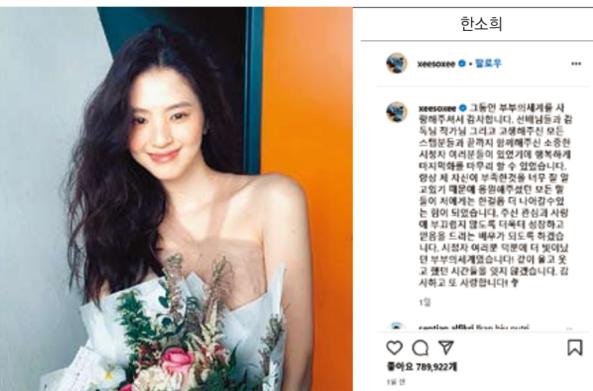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오너 일가 고통분담을 수반한다. 이 당선인이 경영실패를 도의사한 채 국회에 재입성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정치인 제1 덕목은 '책임감'이다. 앞선 경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경제통'이라 칭한다면 현 사태는 이 당선인에게 더욱 무겁다. 당선 사태가 끝난 후 이 당선자가 이스타 창업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무척 궁금하다.

김희진 기자 heejin@newdailybiz.co.kr

시장경제신문	meconomynews.com	회사명	에이앤에프 코리아		
발행인	이성복	편집인	유지원		
대표전화	02-6919-7032	(우) 04527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3층 (단양빌딩)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등록번호	서울시 다 10279	등록년월일	2011년 8월 23일	간별	주간
인쇄인 및 발행소	동아인쇄 /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02-2020-17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스타 SNS



2020 경자년(庚子年) 6월의 띠별 운세

2020년 6월 1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띠별 운세입니다. 사주역학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 온다. 중요한 일이나 만큼 한번더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꼼꼼하게 챙기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72년생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 친분을 돈독히 하라. 84년생 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던 만큼 기쁨도 클 것이다.

소(축, 丑)
대인관계가 매우 좋다. 불만했던 관계의 지인들과 대면했다면 이번을 기회로 삼아 화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면 응할 것이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61년생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면 기쁜 일이 있다. 73년생 근거 없는 낙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5년생 진실은 언젠가는 통하는 법이다.

호랑이(인, 寅)
자신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기 보다는 많이 경청하는 것이 좋다.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62년생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라. 서로가 미소를 짓게 만든다. 74년생 주위의 도움이 있어 희망대로 된다. 감사하라. 86년생 생각한 만큼의 성과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토끼(묘, 卯)
인맥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투자항목을 잊지마라. 소홀함이 있었지만 이번 되돌아 보고 부족함을 반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돈독한 관계 유지에 힘써라. 75년생 산 장성이 코앞인데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밀고나라. 87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모임에 참가할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용(진, 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더 많은 능률을 원하고 있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살짝 쉬어주며 자기 충전의 시간이 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64년생 잔칫날도 아내대 잔칫집 같은 분위기가 될 것이다. 76년생 한발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88년생 주위에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

뱀(사, 巳)
마음 내키지 않음지 모르지만 느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면, 당시에 대한 평가 역시 높아 질 것이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65년생 감정에 따라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라. 77년생 이런저런 일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89년생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한술 더리게 된다.

말(오, 午)
마음이 편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소신껏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66년생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78년생 험난해선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90년생 생각지도 못했던 후원자나 협력자를 새로 만나게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양(미, 未)
매사가 수월하고 사고가 없으니,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평소 소심한 행동을 보여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대담한 행동을 보여줄 시기이다. 67년생 이제는 자연스럽게 현실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79년생 사들러 하는 일은 결과가 없으니 침착하게 처리해야 한다. 91년생 보다 과감한 결단력과 자책심이 요구된다.

원숭이(신, 申)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지만 스스로 역부족이라 생각하는 도움을 청하라.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포기하라. 68년생 마흔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80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소극적인 태도로는 발전이 없다. 92년생 마음을 바꾸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닭(유, 酉)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충실히 수행한다면 주위로 부터 도움과 인정을 받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9년생 노력을 안 하면 허사가 되니 맡은 일을 충실히 하라. 81년생 담당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너무 어이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야 따지지 마라.

개(술, 戌)
한마디로 좋다. 이번 기회가 말로 평소 애미고 있었던 일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을 것이다. 일반 일초가 아니다. 58년생 예상외의 소득이 따라온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무난하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바깥보다는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년생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공공 감추어야 한다.

돼지(해, 亥)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더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지름을 잊지 말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라. 59년생 동분서 주한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71년생 서투, 문서 등 처리에 길다. 신중하면 도움이 된다. 83년생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나서지 마라.